

서지혜 “‘사랑불’ ‘차도녀’→‘저갈드’ 두려움 깬 도전”

올해 두 편 드라마 전혀 다른 매력 캐릭터로 활약

“데뷔 18년차...달라지지 않은 건 ‘재밌다’ 느낌”

배우 서지혜는 올해 두 편의 드라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올해 2월 중영한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극본 박지은/연출 이정호/이하 ‘사랑불’)과 지난 14일 끝난 MBC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극본 이수하/연출 고재현 박봉섭/이하 ‘저갈드’)에서 각각 리정혁(현빈 분)의 약혼녀인 차도녀 서단, 애교 넘치는 러블리한 매력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PD 우도희를 연기하면서 전혀 다른 매력의 캐릭터로 활약했다.

‘사랑불’은 해외 팬들도 인스타그램에 많은 피드백을 남길 만큼 인기를 실감하고 있고, ‘저갈드’는 “다음에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도 깨준 작품”으로 남았다. 어느새 올해 데뷔 18년차가 됐지만 “달라지지 않은 건 ‘재밌다’라는 느낌”이라는 서지혜. 올해 그 누구보다 바쁜 상반기를 보낸 서지혜를 만나 ‘사랑불’과 ‘저갈드’ 그리고 그간의 배우 생활과 결혼, 연애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저갈드’ 중영소감은.

▶끝나서 시원하다. ‘사랑불’이 끝나자마자 촬영 시작해서 긴 시간을 해운 것 같다. 두 작품을 연달아서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힘들었고 정신없이 1년을 보내 것 같기도 하다. 시원하기도 하고 올해를 알차게 잘 보냈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다.

-두 작품 연달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캐릭터가 다르다 보니까 그동안 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고민했다. 캐릭터를 잘 해낼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더라. 서단이라는 캐릭터는 차분하고 도시적 정적인 편이라면, 우도희는 동적인 캐릭터다. 연기를 잘 할 수 있을지가 걱정 반,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 반으로 시작했다. 초반에는 어색했었다. 그동안 시크하고 그런 연기 톤을 보여줬었는데 우도희는 텐션이 많이 올라가는 아이여서 어색했다. 연기하면서도 ‘감독님 (텐션) 이거 맞아요? 괜찮아요?’라고 물어보면 ‘더해도 된다’고 하시더라.

한달 정도는 굉장히 어색해하면서도 재밌어 했다.

-어떤 캐릭터가 본인하고 더 가깝나.

▶둘 다 비슷한 게 있다. 서단도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동시에 저도 우도희를 좋아하기도 하고 비슷한 게 많다. 제게 있는 숨겨진 하이텐션을 극대화 시켜서 연기하는 거니까 연기하면서도 더 많이 밝아진 것 같다.

-텐션이 높은 역할을 연기할 때 어려웠던 점은.

▶어색함이... 그게 좀 약간 그랬다. (웃음) 애교가 없어서 그런가 약간 오글거린 하더라. (웃음)

-김정현과 ‘저갈드’ 초반에 연인으로 등장했다. ‘저갈드’에서 재회할 소감은.

▶김정현씨한테 제가 특별출연 제안을 했다. ‘사랑불’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 ‘사랑불’에선 데이트하는 장면이 없어서 ‘저갈드’에서 보여주면 재밌을 거 같다 생각했다. 흔쾌히 정현씨가 한다고 해줘서 저는 재밌었던 것 같다. 전작에서 호흡을 맞췄던 사이라 어색하지 않게 연기했다. ‘저갈드’에선 3년 만의 연인 설정이었다. 다른 배우와 했다면 어색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할 정도로 편안하게 촬영을 했다.

-극을 끌어간 소감은.

▶극을 끌어간다는 것만으로도 부담감이 있는데, 새로운 모습이라든가,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다. 스태프들과 합심해서 만들어가는 것이고 드라마는 혼자 이끌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것은 잘 풀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그런 숙제들이 제겐 큰 고민이었다.

-‘저갈드’에서 연애 상황을 연기해본 후 느낀 점은.

▶사랑이나 연애에 특별함을 기대하기 보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좋은 것 같다. ‘저갈드’로 인해 사랑과 연애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 누군가와 꼭 특별한 뭔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랑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더라. 나도 편하게 사랑하고 싶었다는 걸 이번 드라마를 통해 알게 됐다. ‘평범하게 제일 좋은 거구나.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란 걸 알았다.

-데뷔 18년차를 실감할 때가 있다.

▶요즘 스태프들이 다 저보다 나이 어리더라. 80% 이상이 어리다. 나이 차이를 느낄 때 ‘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경력이 있구나’ 한다. 아직까지도 저는 스스로 철이 안 들었다 생각해서 나름 젊게 산다. (웃음).

-데뷔 18년차, 데뷔 당시와 지금까지 연기한 변화가 있었는지.

▶데뷔 초기엔 패기와 열정으로 달려왔다. 그때 시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시기다. 지금도 연기를 아직 잘 모르겠고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큼 하는 게 중요해졌다. 예전에는 남을 위해, 보여주기 위한 걸 했다면 이젠 스스로가 만족할 만한 연기를 되묻는 시간인 것 같다. 연기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 있고 잘하고 싶고 책임감도 훨씬 크다. 달라지지 않은 건 ‘재밌다’라는 느낌이다. 그건 그대로다. 그때도 연기가 재밌었다. 내가 잘하는 못하든 이 직업이 즐겁고 재밌다는 느낌이 아직 남아있다.

-슬럼프는 없었나.

▶20대 중반엔 힘들었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에 부딪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대단한 인기를 얻으려고 연기하는 게 아닌데 연기가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뭐 때문에 그런 거지 하면서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연기를 잘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달려보자 했다. 그때 연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변했었고 지금까지도 그 시각으로 연기 해온 것 같다.

-슬럼프를 극복한 특별한 방법은.



▶어느 순간 쉬고 싶다 해서 1년 정도

활동을 쉬었던 적이 있다. 한동안 일상 생활을 했었고 조금씩 마음을 잡아갔다. 그때 안 쉬었다면 연애인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더라. 달리다가 쉬긴 쉬어야겠다 생각이 들때, ‘중요한 건 나한테 시간이 필요했구나’ 싶더라. 평범하게 학교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놀고, 공연하고 그랬던 시간이 의미있었던 시간 같다.

-송승헌과 호흡은.

▶재밌었다. 처음 뵈는 때는 점잖고 예의 바르고 조용하길 거라 생각했는데 장난도 많이 치셨다. 오히려 되게 웃기시고 밝은 기운들을 갖고 계시더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편안하게 촬영했고, 빠르게

친해졌던 것 같다.

-이지훈 손나은 등과도 호흡은 어땠는지.

▶친화력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편안하게 했다. 모두가 낯을 많이 가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고 이지훈씨도 처음부터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더라. 손나은씨와도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다.

-‘사랑불’ 인기는 실감하는지.

▶(코로나19로) 시국이 이렇다 보니 (인기가) 몸으로 와닿기 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실감하기도 한다. 댓글이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로 써있더라. ‘사랑불’이 인기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조금 더 느낀다. 기분이 좋더라.

라비→김우석 ‘피버뮤직 2020 쿨 썸머 프로젝트’ 공개

쿨(COOL) 노래 재해석



김남주, 김우석, 남도현, 니엘, 라비, 예리, 전웅 (이모지)는 가나다

(우)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 이하 엔씨)가 ‘피버뮤직 2020 쿨 썸머 프로젝트’ 음원을 공개한다.

‘피버뮤직 2020 쿨 썸머 프로젝트’는 국내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여름 대표 그룹 쿨(COOL)의 노래를 재해석한 음원이다. 쿨의 원곡의 멜로디를 살리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으로 재해석했다.

엔씨는 오는 24일 라비, 예리, 전웅(AB6IX)이 참여한 첫 번째 음원 ‘해변의 여인’을 발표한다. 니엘(틴탑), 김남주, 남도현이 부른 두 번째 피버뮤직 ‘운명’은 31일, 라비, 예리, 김우석이 참여한 ‘애상’은 8월7일, 그리고 14일 히든 트랙이 공개될 예정이다.

엔씨는 ‘해변의 여인’과 ‘애상’의 뮤직 비디오도 공개한다. ‘해변의 여인’ 뮤직 비디오에는 인기

웹드라마 ‘일진에게 찍혔을 때’의 이은재, 강윤, 주현영이 깜짝 카메오로 출연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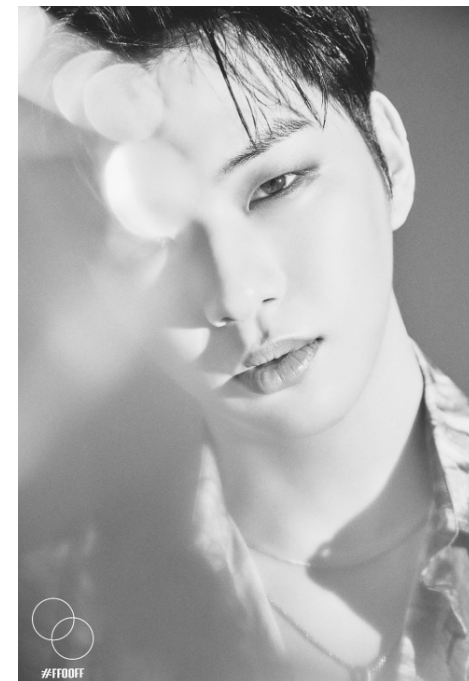
‘애상’ 뮤직비디오에는 곡 제작에 참여한 아티스트 라비, 예리, 김우석이 직접 출연한다.

엔씨 재휴사업실 이민호 실장은 “오프라인 페스티벌 대신 ‘피버뮤직 2020 쿨썸머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만큼 제작 과정에서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준비했다”며 “피버뮤직이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엔씨 ‘즐거움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상’이라는 기업 가치 아래 2016년부터 오프라인 문화축제 ‘피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피버뮤직’으로 행사를 대체했다.

강다니엘, 신보 ‘마젠타’ 흑발 스타일링

컬러 프로젝트 두번째



가수 강다니엘이 새 앨범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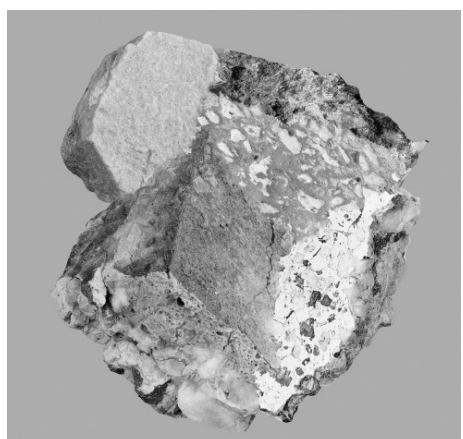
강다니엘은 2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새 미니앨범 ‘마젠타’(MAGENTA)의 첫 번째 콘셉트 포토를 선보였다.

사진 속 강다니엘은 흑발로 변신한 헤어스타일에 붉은 계열의 아이 메이크업으로 강렬한 마젠타 스타일링을 완성시켰다. 여기에 카메라를 응시하는 깊은 눈빛과 몽환적인 마젠타 조명을 더해 눈길을 끈다.

컬러 프로젝트의 첫 단추였던 ‘사이언’(CYAN)과 뒤를 잇는 ‘마젠타’. 강다니엘의 두 번째 미니앨범 ‘마젠타’는 전작 발매 이후 5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로,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별과 같은 색을 입고 또 한걸음 성장한 강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첫 앨범에서 보여준 청량함은 온데간데없는 완벽한 변신으로 시선을 사로잡은 강다니엘이 새 앨범으로는 어떠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카더가든, 오늘 신곡 ‘31’...매력적 사운드

뮤비 티저 3D 애니메이션 제작



가수 카더가든(Car, the garden)이 새 싱글 뮤직비디오 티저를 선보였다.

카더가든은 오늘 오후 6시 발매될 새로운 싱글 ‘31’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20일 공개했다.

공개된 ‘31’ 뮤직비디오 티저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카더가든은 지난 10월 발표한 2집 ‘C’의 타이틀 곡 ‘꿈을 꿔어오’에서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뮤직비디오 티저를 선보여 눈길을 끈

다. 티저에는 ‘31’ 음악이 짧게 삽입돼 곡의 무드를 보여준다.

아날로그 감성과 밴드 사운드를 조화롭게 매치하는 것이 강점인 카더가든은 이번 싱글에서도 특유의 매력적인 사운드를 보여주며 강한 여운을 남긴다.

카더가든은 중독성 있는 후렴이 삽입된 두번째 티저를 연달아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일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규 2집 발표 후, 약 9개월 만에 발표하는 신곡 ‘31’은 오는 21일 오후 6시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22일 유튜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곡 ‘31’의 발매 과정과 일상을 담은 미니 다큐멘터리를 공개한다.

지상렬 “이상형은 진하게 잘생긴 스타일”

방송인 지상렬이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얘기했다.

20일 오전 방송된 KBS 라디오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는 방송인 지상렬이 출연해 DJ 박명수와 함께 ‘직업의 섬세한 세계’ 코너를 진행했다.

이날 박명수는 최근 지상렬이 채널A ‘아이콘택트’에 나와 소개팅을 한 것을 언급하며 “결혼과 소개팅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지상렬은 “저는 막지는 않는다”

라며 “제가 인연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소개팅을) 막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지상렬은 “연분이 어디서 닿을지는 모르는 거다”라고 덧붙혔다. 이어 지상렬은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저는 좀 잘생긴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다. 지상렬은 “귀여운 스타일이 있고 잘생긴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잘생긴 스타일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진하게 생긴 스타일을 좋아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